

<2016년 10월 26일 수요일말씀>

<인간의 행실>이 ‘말’이 되어 하나님 귀에 들린다

본 문 시편 19편 3-4절

『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
<그의 소리>가 온 땅에 통하고 <그의 말씀>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』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
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이번 주 주일에는

‘<인간의 행실>이 ‘말’ 이 되어

하나님 귀에 들린다.’ 라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.

◎ 주일에 아주 자세히 말씀했으니

오늘은 핵심만 꼭 짚어서 ‘잠언’ 으로 전해 주고,

그 잠언에 이어서 ‘짧지만 깊고 귀한 말씀’ 을 해 주겠습니다.

(* 설교자가 주일말씀을 깊이 보고,

수요말씀을 전할 때 ‘한 번 더 짚어 줘야 할 말씀’이 있는지 찾아봐라.

그리고 그 부분을 수요말씀 ‘첫 부분에 전초’로도 전해 주고,

수요말씀 ‘마지막 부분’에도 넣어서 말씀을 잘 매듭지어 봐라.

주일말씀에 ‘하나님과 주 말씀의 원본’이 있다.
자기 말을 넣지 말고 ‘말씀 원본 내용’을 넣어서 전해라.
많이 할 필요도 없다.

- * 또 <잠언을 전할 때>는 ‘설교할 때’처럼 하면 된다.
다만 끝이 ‘~다.’로 끝날 뿐이다.)

<말씀 시작>

◆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<인간>이 ‘천 마디’로 말하면

<나 여호와>는 ‘한마디’로 대답한다.” 하셨다.

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말씀을 안 하시고,
인간이 다 말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니,
너무 답답하지 않으시냐고 물었다.

- ◆ 이때 하나님이 먼저 <비유>를 들어 말씀하시고,
이어서 하나님의 입장도 말씀해 주셨다.

“네 앞에 어린아이가 이것저것 이야기하는데,
말끝마다 일일이 다 대답해 주면 피곤하지 않겠느냐.

어린아이는 뇌가 그 차원까지만 발달했으니 이것저것 말한다.

어른은 그 말을 쭉~ 들어 보고 ‘꼭짓점’을 대답해 주는 것이다.

나 여호와도 그러하다.

내가 전능자로 사는 방법이 있다. 그 위치, 그 행함이다.

<인간>은 나 여호와 앞에 ‘어린아이’와 같아서

잘 모르니까 ‘성장기 어린아이’ 같이 이것저것 다 이야기한다.

가만히 듣고 있다가 <끝>에 ‘한마디’ 해 준다.

<그 한마디 속>에 ‘천 마디 물음의 답’ 이 다 들어 있다.”

(하셨습니다.)

- ◆ 아이들이 노는 데 가 보면, 별 이야기를 다 한다.

성장기에는 뇌 구조상 별의별 이야기들이 입에서 다 나온다.

성장된 어른들이 그 말을 듣고 말끝마다 다 대답하려면, 피곤하다.

- ◆ 어른들은 어린아이가 놀면서 이것저것 말하는 것을 하나하나 듣고 두고 보다가, 종합적으로 ‘한마디’ 한다.

→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

‘인간의 천 마디 물음’ 에 ‘한마디’ 로 대답하신다.

- ◆ 청중 만 명이 모였다 하자.

그 만 명이 모두 앞에 있는 지도자에게 인사했다.

이때 지도자는 개인에게 일일이 대답하지 않고,

전체를 향해 손을 한 번 흔들면서 ‘한마디’ 로 답한다.

→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

‘인간의 천 마디 물음’ 에 ‘한마디’ 로 대답하신다.

- ◆ 인간이 성장하여 수준이 되면 상식적인 것은 다 아니,
작은 것들은 말 안 하고 ‘큰 것’ 만 말한다.

고로 하나님도 ‘백 마디 물음’ 에 ‘한마디’ 하신다.

거기서 더 성장하고 더 수준이 높아지면,
하나님은 ‘열 마디 물음’에 ‘한마디’ 하신다.

거기서 더 성장하여 ‘신적 차원’에 서면,
하나님은 그 사람을 ‘사랑의 대상’으로 삼고
말이 끊이지 않게 ‘대화’를 하신다.

그것을 기록하면 - <설교>가 되고, <잠언>이 되고,
<계시>가 되고, <책>이 된다.

- ◆ 원어민이 아무리 그 나라 언어를 잘해도
듣는 사람이 그 나라 언어를 모르면 (천천히 알아듣게)
원어민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.

또 원어민이 아무리 그 나라 언어를 잘해도
상대가 발음을 제대로 못 하면 (천천히 알아듣게)
원어민도 상대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.

- ◆ 하나님 앞에 인간도 그러하다.

하나님이 아무리 잘 말씀해 주셔도
자기가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준이 안 되면,
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.

또 하나님이 아무리 잘 말씀해 주셔도
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을 못 하면,
하나님은 그와 대화하지 못하신다.

하나님은 말을 안 해도 아시지만
하나님과 대화하며 같이 살려면,

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하고 표현해라.

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성장하여 수준을 높여라.

<잠시 쉬었다가> 중요 부분

◎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더 깊이 잘 들어야 됩니다.

◆ (중요)

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잘 통하는 방법>이 있다.

곧 ‘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’ 이다.

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행하면,

<그 행위>가 ‘실제 언어와 말’ 이 되어 ‘하나님의 귀’ 에 들린다.

그러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

<그 행위의 말>을 듣고 대답하신다.

<대답>은 ‘말’ 로 하지 않고 ‘실체’ 로 하신다.

곧 만물, 여전, 환경, 할 일로 답을 주신다.

◆ 인간은 재미있게 기뻐하며 살기를 원한다.

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나의 뜻대로 살면, 영원토록 재미있게 기뻐하며 산다.” 하셨다.

◆ <영원>이란 단어는 -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 쓰시는 단어다.

◆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 영원하시다.

고로 오직 삼위일체만 권한을 가지고 ‘영원’ 이라는 단어를 쓰신다.

- ◆ 어느 누구도 ‘영원’ 하지 않다.
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 ‘영원’ 하시다.
- ◆ 어느 누구도 ‘영원’ 하게 만들 수 없다.
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해야
자기 육을 통해 자기 영을 변화시켜 ‘영원’ 하게 만든다.
- ◆ <영원>이라는 말은 ‘최고로 크고도 큰 단어’ 다.
가다가 없어지면 안 되고, 소멸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.
가다가 없어지지 않을 자 누구이며,
가다가 없어지지 않게 할 자 누구라.
- ◆ 가다가 소멸되면, 아무것도 아니다.
모든 것은 ‘영원히 존재하는 자의 것’ 이 된다.
- ◆ <사탄>도 생명권에서 소멸됐으니, ‘주인’ 이 못 된다.
- ◆ <영원히 존재하는 자>가 ‘주인’ 이다.
- ◆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‘생명권에 존재하는 자’ 만
<생명권에 있는 것들>을 ‘자기 소유’ 로 삼는다.
- ◆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‘사망권’ 에 처하면,
<생명권에 있는 것들>은
실오라기만큼도 ‘자기 것’ 으로 삼지 못한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다음 말씀을 계속 들어 보기 바랍니다.

- ◆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 <죄> 아니면, <의>로 결정된다.

<자기편>에서는 ‘의’로 봐도

<심판자 하나님>과 <그 보낸 구원자의 편>에서 보면

그것을 ‘죄값’이나 ‘형벌’로 본다.

- ◆ 유대 종교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모르고 죽였다.

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을 ‘이단 척결’로 보았다.

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‘하나님의 충신’으로 보았다.

그러나 <심판자 하나님>과 <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>은

그들을 ‘살인자’로 보고 심판하셨다.

- ◆ <자기편>은 ‘불법’도 자기 주관대로 ‘옳은 것’으로 본다.

오직 <하나님>과 <그 보낸 구원자>가 판단해야 온전하다.

- ◆ 사기꾼, 폭력꾼들은 ‘자기가 행한 것들’을 두고

잘못됐다 하지 않는다.

그러나 <의의 편>에서 ‘법’으로 볼 때는

그 행위를 ‘불법, 불의, 악’으로 보고 심판한다.

- ◆ <선 편>은 ‘하나님의 선의 제도’를 ‘선’으로 본다.

<하나님>께 속해 살면서 <하나님의 법>을 행하는 자들은

그 법에 벗어난 행위를 모두 ‘악’과 ‘불의’로 본다.

- ◆ 그러나 <악 편, 사탄과 그쪽에 속한 자들>은
‘악의 행위와 제도’를 ‘선’으로 본다.

<악>에 속해 살면서 <악의 법>을 행했으니,
자기 행위를 ‘공적’으로 보고 ‘선’으로 본다.

- ◆ <악>은 결국 스스로 멸망받도록,
하나님은 이 세상과 영의 세계까지 다 법을 정하고 창조하셨다.

- ◆ <악>은 ‘이 세상’에서도 망하고, ‘영의 세계’에서도 망한다.

하나님은 <악>을 ‘악의 세계’에 가두고,
그 주관권에서만 활동하게 하신다.

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,
때가 되면 그 ‘영들’을 ‘영원한 불바다’에 넣고
영원히 거기 처하게 하신다.

<악>을 ‘선’으로 여기고 살면서 <선>에게 그리도 고통을 줌으로
그로 인해 ‘영원하신 하나님’에게까지 고통을 준 연고다.

<하나님>과 <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>에게
고통을 준 죄가 그리도 크다.

그로 인해 ‘영원한 고통’을 받게 된다.

- ◆ 돌이키라고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
끝까지 무시하며 회개하지 않고, <악>을 그리도 좋아하며 행한다.

<악>을 행하며 ‘희열’을 느끼고,

<불법>을 ‘낙’으로 삼고 행한 자들이다.

하나님과 그가 보낸 구원자는
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과정 중에도 심판하여
그 <육>도 <영>도 ‘행위’ 대로 받게 하셨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하나님이 주신 ‘잠언 세 개’ 만 더 전해 주고,
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.

- ◆ <자기만 아는 비밀>은 아무도 몰라야 된다.
고로 ‘비밀의 자물통’을 채워 아무도 모르게 한다.

그러다 참지 못하고 ‘사랑하는 자’에게는 말한다.

고로 ‘비밀의 자물통을 여는 열쇠’를 녹여 없애라.
그래야 비밀이 완벽히 보장된다.

- ◆ <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밀>은
둘도 모르게 하고 자기만 행해야 된다.

고로 ‘비밀의 자물통을 여는 열쇠’를 녹여 소각하고,
그 비밀은 ‘자기’만 알고 행해야 된다.

그래야 ‘킹(king)’이 된다.

- ◆ 사랑하는 자에게는 <비밀>을 말하게 되니,
아예 ‘비밀의 자물통을 여는 열쇠’를 녹여서
때마다 ‘자기’만 쓰게 해라.

<말씀 마무리>

- ◎ 설교자들이 주일말씀과 오늘 말씀을 깊이 보고,
핵심 몇 마디 붙잡고 해 주면서 마무리한다.